

병원탐방

부산 메리놀병원 물리치료실

새해의 기쁘고도 가슴부푼 계획들을 뒤로하고 우리 편집위원은 부산종합병원으로써 유일한 재활의학과인 메리놀 병원을 찾아 이지역 물리치료의 단면과 회원들의 활동사항을 취재하기 위해 신년초에 방문하였다.

부산에는 일찌기 1953년경에 국립재활원이 설립되어 외국인 물리치료사들이 처음 기술을 보급한 이래 급속히 발전하여 이 지역의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잘 되어 있고, 이곳에서 많은 선배회원들을 배출한 역사의 지방으로 이곳 부산 경남 지역은 현재 약 140여개소의 물리치료실과 취업회원 170여명, 전체회원수는 220여명에 달하고 있는 전국 지방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부산 유일의 교육기관인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이 있어 부산경남의 신진 물리치료사들을 배출시키고 있다.

카톨릭 재단인 메리놀병원 재활의학과의 처음 개설된 것은 1969년말 미국 세계재활 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이래 지방에선 최초로 재활의학이 핵심적 업무인 의료재활을 시작하여 미국에서 재활의학을 전공한 *이강목 박사님과 현 기사장으로 일하시면서 부산경남협회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황현교 선생님과 많은 동료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탄탄한 초석을 다져왔다. 그리하여 500병상 병원규모의 재활의학과는 150여평의 넓은 공간에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10여명의 재활요원들이 하루 100여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는 부산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재활의학과로 발돋움하였다.

그동안 본 병원의 꾸준한 발전과 관심 그리고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재활치료의 핵심인 물리치료실부터 시작하여 작업치료실, 근전도실, 그리고 보조기, 의지제작실까지 갖추고 병원 최대목표인 양질의 진료를 위한 진료지원 부서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정형외과를 주축으로 한 전 진료부서와 병원직원들의 협조아래 팀-웍을 이루어 치료에 임하고 있다. 또 이곳은 동일재단 산하인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의 지성 실습 병원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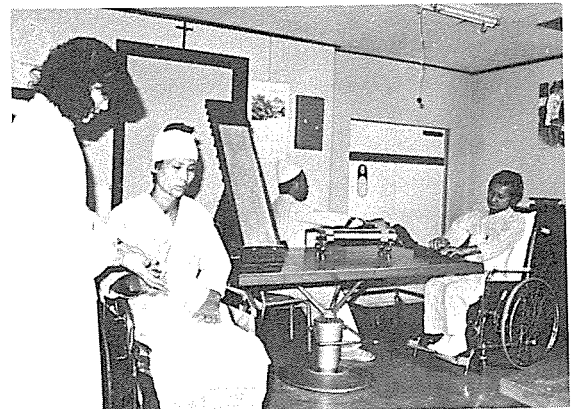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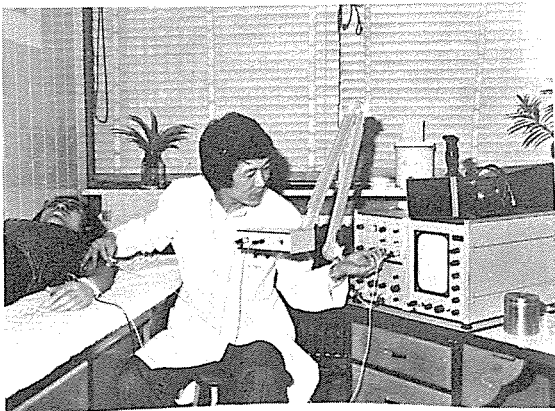
도 하며, 90여명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실습에 임하고 있다.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면 8:30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방송되는 아침기도에 이어 과내의 업무점검과 평가가 끝나면 곧이어 환자 case별 study가 있어 질적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각 부서를 간단히 소개시켜 준다.

재활치료의 핵심부서인 물리치료실 외에 근전도실은 우리 회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신경근육계의 진단과정에서 기질적 신경손상여부, 손상의 성격과 범위, 자연회복의 가능성여부, 외과적 수술여부와 예후 등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고, 주로 말초신경계 질환의 진단을 위한 모든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하는 전기진단업의 하나로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환자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재활의학과 책임기사이며, 근전도실을 맡고 계시는 유재관 선생님의 말씀이다.

또 부산 유일의 작업치료사 연수기관인 이곳에는 1명의 작업치료사와 1명의 연수생을 두고 있는데, 치료목적으로 선택한 작업을 통해 기능회복과 장애를 치료하



여 환자의 신체적, 감정적, 능력을 찾아낸다. 그래서 이 힘을 최대한 신체기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환자가 실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및 생산적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적응과 능력을 갖도록 치료, 훈련하는 것이라고 정귀분 회원은 말하고 있다.

보조기 의지제작실은 전국 4개 종합병원중의 하나로 이들 보조장구들은 인체의 운동기전과 해부학적 기능에 기반을 두어 제작하고 착용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곳에는 두분의 선생님이 입원이나 외래환자들을 위해 분주히 보조장구들을 제작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원내 물리치료사들에게는 책임기사, 기사장이라는 승진제도가 있어 철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 그리고 근무의욕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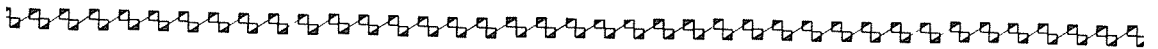
이와같이 재활치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물리치료실의 안중국회원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오랜 투병 생활로 심신이 피로한 이들에게 삶의 의의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숭고한 역할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물리치료사로서의 긍지도 느낀다고 한다.

우리의 교육과 기술수준이 아직 뒤진 것은 사실이나 졸업후에도 임상공부를 계속하여 회원 스스로가 자기 발전에 꾸준한 기술연마로 인정받는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살얼음을 에는듯한 바깥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훈훈함을 느끼게 하는 재활의지의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사람은 반드시 외롭지만은 아닌 것일 뿐만 아니라 자리를 정해 서기에 따라서 보다 뜻있고 보람되고 즐거운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下) '84 장애인 올림픽 참관기

정진우 / 서울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의학기록에서 기타 장애자들의 장애정도 분류를 점수 제로하게 되는데 상지는 각 관절운동을 5점으로 하여 총 60점 양쪽을 120점으로, 하지는 각 관절운동을 5점으로 하여 총 40점 양쪽을 80점으로 하여 총계 200점으로 장애의 정도를 판별하는 점이다.

따라서 신체의 몇 %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되어 훨씬 공정성이 있어 보였다.

우리 선수들은 역도, 수영, 맹인달리기 100 탁구, 궁도, 휠체어달리기, 사격, 투포환 등 8종목에 출전하게 되었다.

6월 15일 16일은 각 선수들을 인솔하여 기타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은 삼육재활원 김송석 선생님이, 맹인선수들은 맹인학교의 신동열 선생님이, 수영선수들은 정립학교의 전해사 선생님이 인솔하여 훈련에 임하게 되었으며 나는 선수들의 장애의 정도, 인적사항들을 적고 차트를 만들고 매일매일 환자들의 건강상태의 점검과 스포츠 맛사지, 간단한 처치들을 했었다.

전기합팩과 몇가지 약품(벤게이언고라든가 스프레이식 동통완화제 소염제 맛사지오일 프라스타 소양증에 바르는 약 간단한 진통해열제 소화제 등은 현지에서 곧바로 사서 돌발사고에 대비하였다.

내 계획은 아침저녁으로 매일 선수들의 건강 체크를 하고 각종 경기구경을 하며 많은 사진을 찍어 자료를 가지고 가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선수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며 현지의 임원이 부족하여 양궁선수들의 뒷바라지 일을 맡게되었다. 양궁을 잘알았다면 분명 코치의 역할인데 양궁의 양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선수들에게 배워가며 익히기로 했다.

양궁은 김진호 외에는 경기규칙만 책을 보아 조금 알뿐 그야말로 백지상태였다. 또 양궁은 다른 경기와 달리 상당히 지구력이 요하는 경기였다.

왜냐하면 단 하루에 또는 한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흘간이나 활을 쏘서 그 득점으로 승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36발씩 8번을 쏘야하니 모두 288발을 쏘야하며 조준시발까지 하면 312발을 쏘야만 한다. 피약실에서 연습기간 4홀간과 본시합 4홀간 8일간을 계속 쏘야하니 몸이 불편한 선수들의 고생은 말일 아니었다. 더구나 남녀선수가 어린나이에 각각 훈련기간이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경력으로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경기에 임하여 이들에게 무엇인가 그래도 메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 온 각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나이도 많았으며, 경력들도 6-7년에서 10년씩은 되었다. 언어는 어벙벙한 영어로 선수들의 통화와 경기를 설명하여 알려주고 하자니 내 신세도 한심한데 그래도 이곳은 영어쓰는 사람과 단둘만이 아니라 모두 제나라 말만 잘하는 사람들 수십개국 인들이 모여 그나마 부끄럼없이 웃으며 빈정대며 아는척 하며 건성건성 쉽게쉽게 바디랭귀지마저 해가며 살게되니 그리 큰 불편도 없었으나 회의 석상이나 장황하게 영어로 늘어놓는 상황이 닥치면 짧은 영어가 한스럽기만 하였다.

드디어 6월 17일 개회식이 열리는 날이다.

각 나라 선수들은 모두 대회복으로 산뜻하게 갈아입고 모두 미첼파크에 모여 들었다. 유니폼을 입으니 얼마